

The Virginia Woolf Society of Korea Newsletter

한국버지니아울프학회

The 129th MLA Annual Convention 후기

지난 1월 9일부터 12일까지 시카고에서 129차 연례 MLA 학술대회가 열렸다. 50년 이래의 최고 한파가 시카고를 덮었다는 무시무시한 뉴스가 연일 언론을 장식했지만 겁 없이 시카고 행 비행기에 몸을 던졌다. 여러 사람들의 발표를 듣다보면 뭔가 좋은 글감 같은 게 떠오르지 않을까하는 막대한 기대감을 갖고 갔다. 숙소는 인터컨티넨탈 호텔에다 정했고 학술대회는 그 바로 맞은편의 마리웃 호텔과 또 바로 뒤편에 위치한 셰라톤 호텔에서 아침 8시 반부터 밤 8시 15분까지 진행되었다. 날씨는 첫날부터 흐리고 음침했다. 목요일 첫날 마리웃 호텔에 들어서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도착해 이야기꽃을 피우고 있었다.

목 금 토 삼일 간 이 학회에 참여해서 얻은 가장 큰 소득은 울프 학회에서의였다. 마침내 울프 연구의 르네상스기가 도래한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다른 학회들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열기로 가득했다. 울프 학회는 세 파트로 나뉘어 따로 진행되었는데 주제별로 묶여져 있었다. 우선 목요일 저녁, 7시부터 8시 15분까지 "Woolf, Wittgenstein, and Ordinary Language"라는 제하로 울프 학회가 열렸다. 마리웃 호텔의 벨몬트에서 The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Society의 주관으로 열렸다. 그곳에 참석하기 전에 나는 이 학회 저 학회 다른 학회들에도 가보았지만 울프 학회는 더욱 많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더욱 화기애애했으며, 세련되고 여유로워 보였다. 우선 회장단에 의한 6월 시카고 학회에 대한 광고가 있었고 이를 위한 논문 투고를 울프 생일날 까지 내달라는 부탁의 말이 있었다. 뒤이어 회장의 환영 인사가 있었고 울프학회에 가입하지 않은 분은 꼭 가입해달라는 말이 있던 뒤 참석한 패널리스트들에 대한 자상하고도 긴 소개가 있었다. 이날 세 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제목은 다음과 같다. "Woolf, Wittgenstein, and Nonsense: *The Voyage Out* as Therapy", "'Stand Roughly Here': Woolf, Keynes, and Ordinary Language in the 1930s", "Dumb Colloquy: The Aesthetics of Conversation and Conversational Aesthetics of *To the Lighthouse*." 앞의 발표는 현직 교수의 발표였고 나머지는 박사 학위를 곧 받을 학생들의 발표였다. 논문은 주로 울프의 언어와 관련된 내용들이었다. 논문 발표는 각각 20분 동안 써온 논문을 아주 빠른 속도로 읽어가는 것으로 진행되었는데 굉장히 빠르고 너무 짧다는 인상을 받았다. 세 편의 발표가 끝나고 받는 질의응답은 더욱 짧았다. 마치 잘 써진 논문들을 갖고 나와서 읽음으로써 사람들 앞에 학자로 데뷔하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던 금요일 저녁에는 5시 15분부터 6시 30분까지 "Virginia Woolf and Book History"라는 제하로 다른 학회와의 연합으로 열렸다. 마리웃 호텔의 맥헨리에서 열렸다. 발표 논문은 각각 "A Library of Her Own: Virginia Stephen's Books", "An Experiment in Form and Content: Vanessa Bell and Virginia Woolf's Monday and Tuesday", "Blank Spaces: The Hogarth Press and 'Lost' Women Publishers" 등이었다. 첫 발표자는 울프 scholar로 소개되었는데 이름은 Beth Rigel Daugherty였다. 문장이 정말 수려했다. ppt 자료까지 준비해서 꼼꼼한 발표를 해주었다. 처녀 시절에 울프가 읽은 책들을 자세하게 소개함으로써 그녀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육을 자기만의 독서를 통해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보여주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를 다루고 있었다. 울프에 대한 지식이 방대해야만 할 수 있는 접근을 적재적소의 자료제시를 통해 유감없이 보여주었다.

마지막 울프 학회는 토요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45분까지 열렸다. "Virginia Woolf and London's Colonial Writers"라는 제하로 열렸다. "Virginia Woolf, the Hogarth Press, and South African Modernism", "Virginia Woolf, Mulk Raj Anand, and the Novel of Political Transition", "Virginia Woolf's Caribbean Connections" 등 세편의 논문 발표가 있었다. 정말 다양한 주제를 다루는구나 싶었다. 비까지 와 눈과 얼음이 뒤섞인 시카고 시내 거리는 때로는 구두사이로 물이 들어와 발이 시렸지만 입에 맞지 않은 호텔 음식을 제외하고는 충분히 재충전이 된 여행이었다.

(평택대학교 이순구)

연구편

☞ 작품 및 비평서 번역사업

- 울프의 *Collected Essays*의 발췌 번역서 1집 (『버지니아 울프: 문학 에세이 1』, 솔 출판사, 2011) 발간 이후, 번역서 2집을 기획 중입니다. 2014년 하반기에 번역서 출판을 계획하고 있으며, 번역 관련하여 매달 모임을 갖고 있습니다.

☞ 버지니아 울프 총서 사업

- 버지니아 울프 논문집 두 권이 발간되었습니다.
『버지니아울프 학회 총서 1: 버지니아 울프』 (동인출판사, 2010)
『버지니아울프학회 총서 2: 버지니아 울프 2』 (동인 출판사, 2013)
앞으로 계속될 총서 발간을 위하여 좋은 논문 많이 집필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 박은경 (pek1009@cnu.ac.kr / 010-4765-3503)

☞ 지난 25호 소식지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 제 22회 학술대회가 숙명여자대학교 백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2013년 한국영어영문학회 국제학술대회(11.7-11.9) 기간 중, 울프 학회 세션(11월 9일 토요일 9:00-10:40)을 통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 2014년 한국영어영문학회 제 23회 정기 학술대회

(공동 주최: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장소: 서강대학교 정하상관 311호

일시: 4월 19일 토요일 (13:00-18:00)

등록 1:00-1:30

1부 (13:30-15:00) 사회: 조애리 (한국과학기술원)

발표 1: 김요섭 (홍익대학교)

A Room of Her Own: Hong Ying on the Verge of Artistry and Pornography in
K: The Art of Love

토론: 박형신 (경북대학교)

발표 2: 이주리 (서울대학교)

단단한 껍데기와 드러난 속살: 버지니아 울프의 『세월』에 나타난 뜻밖의 풍경들

토론: 김명주 (충남대학교)

휴식 (15:00-15:30)

2부 (15:30-17:00) 사회: 이순구 (평택대학교)

발표 3: 김 정 (가톨릭대학교)

"사실과 소설 사이의 이음매: 수잔 샬러스의 바네사와 버지니아"

토론: 진명희 (한국교통대학교)

발표 4: 손현주 (서울대학교)

초상화와 전기문학: 버지니아 울프의 전기문학과 시각매체

토론: 임현주 (덕성여자대학교)

17:00-17:20 종합 토론

17:30 일곡논문상 시상식

— 유익하고 알찬 학회가 되도록 도움을 주신 서강대학교 영어영문학과, 준비를 도맡아주신 김영주 선생님, 발표와 토론을 해주신 여러 선생님, 그리고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제 24회 한국 버지니아 울프 학회는 올해 이화여자대학교에서 열리기로 예정되어 있는 한국영어영문학회 연찬회에서 울프학회 세션을 구성하여 진행합니다. 논문을 발표하고 싶으신 대학원생과 교수님들께서는 연구이사를 맡고 계신 박형신 선생님(parhs@knu.ac.kr)께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울프 독회 안내

- 에세이 2집 발간을 위해 각 선생님들이 번역한 원고를 함께 검토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Collected Essays Vol. I* (Ed. Leonard Woolf, NY: Harcourt, Brace & World, Inc., 1966)에 수록된, 여러 문학 작품과 작가에 대한 울프의 에세이를 중심으로 번역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3년 10월까지의 모임은 제 25호 소식지에 이미 알려 드렸습니다. 그 이후의 독회 모임은 아래와 같이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12월 7일: 이순구 선생님 ("Henry James: 'The Old Order,'" pp. 270-76)

2014년 1월 4일: 김 정 선생님 ("Mr. Conrad: A Conversation," pp. 309-13)

2014년 2월 8일: 정명희 선생님 ("George Eliot," pp. 196-200)

2014년 3월 15일: 정명희 선생님 ("George Eliot," pp. 200-204)

2014년 5월 10일: 이순구 선생님 ("Henry James: 'The Letters of Henry James,'" pp. 277-85)

예정

알림: 정기학술대회와 공휴일이 겹치는 날, 방학 등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매달 첫째 주 토요일에 정기적으로 독회가 있습니다. 손현주 선생님이 계시는 서울대 인문학연구원에서 정기적으로 10시 30분에 모임을 갖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석을 고대합니다.

☞ "일곡논문상"

- 일곡 논문상 논문심사위원회는 보통 1년 동안(전해 3월 1일부터 당해 2월 28일까지) 전문 학술지에 발표된 울프 관련 논문들을 심사하여 그 중 가장 우수한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된 논문에 대해 상장 및 상금을 수여합니다. 작년에 일본과의 공동학술대회로 인해 연기되어, 올해는 2년간 (2012.3-2014.2) 발표된 논문을 심사하여 수상자를 뽑았습니다.

- 2014년 일곡 논문상 심사 대상이 된 논문은 총 13편 이었습니다.
(외국인과 일곡 논문상 두 번 수상자의 논문은 심사에서 제외됩니다. 일곡논문상 두 번 수상 후 5차례의 시상식이 지난 후부터는 다시 심사에 올라갈 수 있게 됩니다.)
울프학회에서 5분이 심사하여 3편의 논문을 뽑았고, 이 3편이 2차 심사대상으로 정해져 학회 외부의 선생님 3분께서 심사하여 최종적으로 정명희 선생님의 「『제이콥의 방』-버지니아 울프와 월터 페이지」가 일곡논문상 수상작으로 정해졌습니다.
- 1차 심사 맡아 주신 학회 선생님들과 2차 심사해주신 조애리 선생님(한국과학기술원), 남기현 선생님(서울과학기술대학교), 김성호 선생님(서울여자대학교)께 깊이 감사 드립니다.
- 2014년 4월 19일 정기학술대회 때 제8회 일곡 논문상을 수상하신 정명희 선생님께 축하드립니다.
- 앞으로도 울프 학자 분들의 활발한 연구 활동을 기대합니다.

편 집 편

☞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지 논문 게재

- 『제임스조이스저널』 2014 여름호 원고를 받습니다. 마감은 2014년 5월 15일 입니다.
- 보내실 곳: 제임스조이스저널 편집위원회 (editjoyce@daum.net)
- 울프 관련 논문은 한국 버지니아울프 학회 (편집 김금주, kumjyonsei@hanmail.net / 010-3253-4707)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작성시 유의사항

- 주석은 본문내주 방식을 지켜주십시오. 각주는 가급적 사용하지 마십시오.
- abstract를 포함해서 영문은 반드시 원어민의 검토를 거친 뒤 첨부해 주십시오.
(조이스저널이 등재지가 된 이후 학진으로부터 평가를 다시 받게 될 때 중요하게 취급되는 사항입니다.)
- 인용문헌의 기재 양식은 MLA 방식을 따라 주십시오.
- 주제어(Key words)는 5-7개의 영어 단어를 초록 뒤에 기재해 주십시오.
- 심사료는 6만원입니다. (심사료는 3분의 심사위원들에게 지불될 예정입니다)
- 게재료는 일반 투고자: 10만원 / 연구비지원을 받은 투고자: 20만원입니다.
- 겨울호는 영문 논문만 게재되오니 참고하시어,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겨울호 마감일: 2014. 11. 15)

정 보 편

- 울프 작품에 대한 보다 많은 자료를 구할 수 있는 편의를 드리고자 학회 홈페이지(www.woolf.or.kr)에 KERIS(한국교육학술정보원), 한국제임스조이스학회, 한국현대영미소설학회의 홈페이지를 링크해두었습니다. 또한 울프관련 해외사이트들을 추천 사이트란에 링크해두었으니 활용 부탁드립니다.
- 2012년 9월 울프학회 홈페이지를 새로이 단장하였습니다. 울프가 머물던 거처를 중심으로 꾸며보았으니 가끔 들르셔서 좋은 정보와 이야기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정보 관련하여서는 담당 신광인 선생님(kishin@cju.ac.kr / 010-5373-9282)께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에 울프에 관해 진지한 질문을 올리시면 본 학회 고문이신 김정 교수님, 정명희 교수님께서 가능한 답변을 해드릴 예정입니다.

섭 외 편

☞ 국제 버지니아 울프 학회 소식

Annual International Virginia Woolf Conference 2014

Co-sponsored by: Loyola University Chicago Northern Illinois University Chicago USA

Theme: Virginia Woolf: Writing the World

Date: June 5-8, 2014

Place: Loyola University Lakeshore Campus

Deadline for proposals: 25 January 2014

For more information go to www.niu.edu/woolfwritingtheworld

재 무 편

☞ 회원가입 및 회비납부

- 본 학회는 울프의 대중화를 위해 일반인에게도 열려 있으며, 회원가입은 전문회원과 일반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전문회원과 일반회원 간에는 회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에 있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학회의 사무 차원에서 편의상 둔 구별입니다.
- 회원가입 신청서는 학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총무 박은경(총무편 참조)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연회비: 3만원

평생회비: 30만원

(평생회비를 입금하실 때 이름 뒤에 꼭 “(평생)”을 기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계좌: 우리은행(1006-801-356387)

예금주: 손현주 (울프학회)

- 그동안 연회비를 미납하신 분은 회비납부를 부탁드립니다. 기부 또한 환영합니다.

총 무 편

☞ 회원 동정

-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조교수로 재직하고 계신 김요섭 선생님께서 평생회원으로 가입하셨습니다.

Columbia University의 School of Engineering and Applied Science에서 학사, 석사 학위를, 『공동체에 대한 스타인벡의 의식 변화』로 2013년 8월, 서울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환영합니다.

☞ 뉴스레터

- 뉴스레터는 4월과 10월, 연 2회 발간됩니다.
- 연간 계획과 행사 소식, 회원 동정 등을 종합적인 보고 형태로 정리하여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좀 더 알차고 신선한 뉴스레터를 위한 좋은 제안 부탁드립니다.
- 이메일, 전화, 주소 등 연락처에 변경사항이 있는 회원께서는 아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경 총무: pek1009@cnu.ac.kr / 010-4765-3503

▣ 임원명단

고문	박희진(서울대학교) 김 정(가톨릭대학교) 정명희(국민대학교)	연구	김영주(서강대학교) 손영주(서울대학교) 임현주(덕성여자대학교) 박형신(경북대학교)
감사	정덕애(이화여자대학교) 진명희(한국교통대학교)	편집	김금주(연세대학교) 홍덕선(성균관대학교) 조애리(카이스트)
회장	이귀우(서울여자대학교)	정보	신광인(청주대학교)
부회장	오진숙(연세대학교)		
총무	박은경(충남대학교)		
재무	손현주(서울대학교)		
섭외	이순구(평택대학교)		